

신자료 한문본 〈소대성전(蘇大成傳)〉의 발굴과 의미

이유진

평택대학교 위촉강사, 국어국문학 전공
nazcael@hanmail.net

- I. 머리말
- II. 신용하본 〈소대성전〉의 자료 현황
- III. 신용하본 〈소대성전〉과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이본들과의 관계
- IV. 맺음말

I. 머리말

〈소대성전(蘇大成傳)〉은 고전소설사에서 영웅소설의 가장 본질적이며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위상은 『상서기문(象胥記聞)』¹⁾, 『추재집(秋齋集)』²⁾, 『봉성문여(鳳城文餘)』³⁾에서 함께 언급된 바 있는 〈설인귀전(薛仁貴傳)〉, 〈장풍운전(張風雲傳)〉, 〈최현전(崔賢傳)〉 등과 더불어 영웅소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품⁴⁾으로, 〈유충렬전(劉忠烈傳)〉, 〈장백전(張伯傳)〉 등과 같이 영웅소설의 대표유형⁵⁾으로 논의한 연구들 덕분에 성립될 수 있었다. 또한 개작(改作) 혹은

1) 조희웅, 「古典小說 研究 落穂 數則: 『象胥記聞』·『九雲記』·『蓮塘傳』 등에 대하여」, 『語文學論叢』 제17권(1998), 42쪽, 『象胥記聞(天理大本)』 재인용. “張風雲傳 九雲夢 崔賢傳 張朴傳 林將軍忠烈傳 蘇大成傳 蘇雲傳 崔忠傳 此外 泗氏傳 淑香傳 玉橋梨 李白慶傳ノ類ハ 唐ノ事ヲ書キ諺文ニテ讀ヨキヤウニ仕タルト云 三國志ナトノ類モ諺文ニテ書タル本有之由.”

2) 趙秀三, 「紀異: 傳奇史」, 『秋齋集』 7.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 〈蘇大成〉, 〈沈清〉. 〈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湖上既自七日, 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 而以善讀, 故傍觀匝圍. 夫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欲聽其下回, 爭以錢投之曰, 此乃邀錢法云.”

3) 李鈺, 「鳳城文餘: 諺稗」, 『潭庭叢書』. “人有以諺稗來爲余消長夜者, 視之, 乃印本, 而曰蘇大成傳. 此京師煙肆中, 拍扇而朗讀者歟.”

4) 이지영, 「〈장풍운전〉, 〈최현전〉, 〈소대성전〉을 통해 본 초기 영웅소설 전승의 행방: 유형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제10권(2000).

5) 서대석은 작품 속 적대자와 주인공의 극복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주인공의 수난이 가족원의 박해로 야기되며 주인공의 개인적 박해자와 국가의 적대세력이 분리되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작품들을 ‘〈소대성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소대성전〉, 〈장풍운전〉, 〈금방울전〉, 〈현수문전〉 등을 포함시켰다. 정치적 적대세력의 탄압으로 주인공은 수난을 겪으며 주인공의 적대자는 왕권의 도전자가 되어 주인공과 대결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유충렬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충렬전〉, 〈조웅전〉, 〈황운전〉 등을 포함시켰다. 주인공이 창업하는 새 임금을 도워서 구왕권을 타도하는 활약을 보이는 작품들을 ‘〈장백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백전〉, 〈유문성전〉 등을 포함시켰다(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69-120쪽). 김홍균은 처가족이 사위의 용모, 재산, 신분 등이 모자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일어나는 갈등을 내포한 작품들을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로 규정한 바 있다. 신화의 순차적 구성과 민담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사회적 문제와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경전〉, 〈낙성비룡〉, 〈사십보전〉, 〈신유복전〉 등의 서사물이 형성, 변모된 것으로 보았다(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제27권, 1985). 임성래는 ‘영웅의 일대기’라는 ‘틀’이 작품들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 단락을 보다 면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탄생, 정혼, 고난, 피화, 구출, 정혼, 고난, 수학, 입궁, 복수, 재회, 혼인, 부귀영화, 죽음 등 화소의 양상을 통해 유형이 분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화소 분석을 토대로 총 4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체제개혁형 영웅소설로 〈옥주호연〉, 〈장백전〉, 〈홍길동전〉 등이, 애정성취형 영웅

파생(派生) 관계로 추정되는 〈낙성비룡(洛成飛龍)〉⁶⁾, 〈용문전(龍門傳)〉⁷⁾ 등에 주목한 성과들에 힘입은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이 지닌 대표성에 비하여 〈소대성전〉의 단일연구 성과는 풍부하지 못한 편이며, 본격적인 연구도 뒤늦게 시작된 감이 있다.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설정에 주목한 연구⁸⁾부터 전체 서사구조와 갈등양상에 대한 분석⁹⁾, 대중성과 인기요인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¹⁰⁾되었으며, 이 외에는 문체¹¹⁾와 창작의 원천들¹²⁾, 인물형상¹³⁾ 등에 관한 연구들이

소설로 〈백학선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황운전〉 등이, 능력본위형 영웅소설로 〈금령전〉, 〈쌍구기연〉, 〈소대성전〉, 〈장경전〉, 〈장풍운전〉, 〈현수문전〉 등이, 인물수호형 영웅소설로 〈김홍전〉, 〈양풍전〉, 〈유충렬전〉, 〈조웅전〉 등이 있다고 하였다(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현혜경은 설화에 존재하는 知人之鑑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대성전〉과 함께 〈朴氏傳〉, 〈靈異錄〉을 지인지감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선정은 신화에 존재하는 謫降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대성전〉과 〈유충렬전〉, 〈유문성전〉, 〈김진옥전〉을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현혜경, 『知人之鑑類型 古典小說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6) 〈낙성비룡〉은 박명숙(『洛成飛龍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김일렬(『洛成飛龍 研究』, 『東洋文化研究』 제3권, 1976), 조희웅(『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비교 고찰』, 『冠嶽語文研究』 제3권, 1978), 김도환(『낙성비룡〉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소대성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18권, 2011), 정재호(『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古小說 研究』 제37권, 2014), 이현주(『낙성비룡〉에서 우울증의 해소와 여행의 의미』, 『韓民族語文學』 제74권, 2016)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 7) 〈용문전〉은 이원수(『소대성전〉과 〈용문전〉의 관계: 〈용문전〉 이본고를 곁하여』, 『語文學』 제46권, 1985); 이지하(『〈용문전〉 연구』, 『冠嶽語文研究』 제14권, 1989); 서경희(『〈용문전〉의 서지와 유통』, 『이화어문논집』 제16권, 1998b); 이명현(『〈용문전〉에 나타난 儒敎規範과 天命』, 『語文論集』 제28권, 2000); 신혜진(『완관 38장본 〈龍門傳〉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 제4권, 2008); 박은미(『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홍길동전〉, 〈유충렬전〉, 〈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등에 의해서 자세히 분석되었다.
- 8) 이수자는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설정에 주목하였다. 소대성의 출생, 나이 등에 나타나는 서술의 오류를 짚어내는 한편, 소대성의 이동으로 인한 공간적 배경의 설정변화가 〈薛仁貴征東〉의 영향하에 성립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수자, 『〈蘇大成傳〉 研究』, 『이화어문논집』 제6권, 1983).
- 9) 김현양은 등장인물의 행동양상을 통해 작품의 서사구성을 제시하였다. 인물행동의 인과성을 추출해 150개의 단락으로 정리한 후, 서사구조(출생-고난-구조-결연-박해-원조-입공-영화), 갈등양상(혼사갈등-국가갈등)을 분석해낸 바 있다(김현양, 『〈소대성전〉의 서사체계와 소설적 특성』, 『연세어문학』 제26권, 1994).
- 10) 임성래는 〈용문전〉의 출판이 〈소대성전〉의 상업적 성공에 기대었다는 것을 전제하며, 〈소대성전〉의 흥미요인을 전쟁장면, 주인공의 성격, 세부전략기법 등으로 논의하였다(임성래, 『완관 〈소대성전〉의 대중소설적 기법』, 『열상고전연구』 제10권, 1997). 한편 김미식은 작품의 대중적 인기요인이 서사구조와 적강·지인지감 화소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미식, 『〈蘇大成傳〉의 大衆性 研究』,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1) 허순우는 방각본 이본들에 나타나는 어휘, 통사, 구성의 층위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출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서사구조와 구성요소, 대중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구에 기준이 되는 대본(臺本)을 선택한 근거도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다.¹⁴⁾

이처럼 <소대성전> 연구가 좀 더 다양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방각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본의 연구경향¹⁵⁾과 관계가 있다. 경판과 완판의 양상을 비교하고, 이 중에서도 완판 43장본을 선본(善本)으로 채택¹⁶⁾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완판 43장본은 필사본에 비해 분량이

허순우, 「〈소대성전〉의 文體論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 12) 김병권은 작품의 창작에 불교사상(「〈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韓國文學論叢』 제41권, 2005a)과 수리성명학(「〈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9권, 2005b), 역사성명학(「〈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사성명학적 연구」, 『韓國文學論叢』 제44권, 2006) 등이 연계된 것으로 보았다.
- 13) 김동욱은 주인공 소대성의 인물형상이 '많이 먹는 장부', '지모 없는 용장', '의리 있는 남아'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대성을 "반지성적 주인공"으로 규정하였다. 김동욱, 「〈소대성전〉의 주인공 소대성의 인물형상 연구」, 『古典文學研究』 제50권 (2016).
- 14) 이수자는 세창서관본을 선택하였다. 이 외에 허순우는 경판과 완판의 문체를 아울러 비교하였으며, 김동욱은 경판 36장본, 완판 43장본, 한문본인 <대봉기>를 함께 논의하였다. 이 외의 연구들은 거의 완판 43장본을 기본본으로 채택한 바 있다.
- 15) <소대성전>의 이본 문제는 이복규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복규는 학계에서 언급된 경판본 6종, 완판본 4종, 안성판본 1종의 서지정보를 소개하고, 그중 존재가 확인된 이본들을 중심으로 판본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삽화의 多寡, 묘사의 詳略이 존재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경판 36장본을 모본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이복규, 「〈蘇大成傳〉 坊刻本檢討」, 『論文集』 제8권, 1980). 류탁일은 완판본의 서술양상을 비교해 36장본으로부터 서술이 부연된 43장본이 생성되었다고 보았으며(류탁일,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이창현은 경판본의 서술양상을 비교해 36장본으로부터 서술이 가장 축약된 16장본이 생성되었다고 보았다(이창현, 『京板坊刻書小說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엄태웅은 경판본과 완판본의 성격에 대해 따로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엄태웅, 「〈소대성전〉, 〈용문전〉의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 양상: 축약정통론과 대명리론의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1권, 2011).
- 16) 서경희는 총 49종에 달하는 방각본, 필사본, 구활자본 이본들의 체계와 변모양상에 대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각 이본들에 "탄생→고난→구조→박해→수련→입공→결연"이라는 공통구조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핀 결과, <소대성전> 이본의 계통이 경판계와 완판계로 양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사본과 구활자본 이본들을 모두 경판본과 완판본 계열의 하위 유형으로 귀속시켰으며, 조본("가장 근접한 이본은 박순호 소장 38장본")으로부터 '주인공의 죽음'으로 닫힌 결말을 취하는 완결된 구조의 경판계가 형성되었으며, 속편인 <용문전>의 출현 이후에 열린 결말을 취하는 완판계로 전승되어 갔다고 보았다. 특히 완판 43장본에 대해서는 주요 서사단락의 누락됨이 내용이 풍부하고 결말이 열려 있는 형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후대에 형성된 이본으로 추정하였다(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a). 서경희의 연구는 이후 연구들에 수용되어, 완판 43장

간소하면서도 주요 서사단락의 누락이 없는 이본으로 평가되었는데¹⁷⁾, 문제는 이러한 완판 43장본이 선본으로 인정되면서 연구의 범주가 방각본 이본들의 서사단락과 주요 장면들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대성전>의 다채로운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본들의 존재양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판 43장본뿐 아니라, 현전하는 필사본, 활자본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작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특성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 발굴한 한문본 <소대성전>의 존재에 대해 최초로 보고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소대성전>을 제명(題名)으로 하는 유일한 한문 필사본으로, 이번 보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방각본 이본들에 집중된 <소대성전>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넣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소대성전> 이본의 변전과정(轉變過程)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신용하본 <소대성전>의 자료 현황

주지하다시피 <소대성전>은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등 다양한 이본들이 현전하고 있으며, 이본마다 형식, 표기방식, 줄거리, 표현 등의 측면에서 다채로운 면모가 확인되는 작품이다. 49종에 달하는 이본의 양상이 한 차례 소개되었으며¹⁸⁾, 이후 서강대학교에 소장 중인 <대봉기(大鳳記)>¹⁹⁾, 일본 고마자와대(駒澤大)에 소장 중인 경판 30장본²⁰⁾ 등의

본이 기준본으로 제시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7) 이지영은 완판 43장본을 기준본으로 채택한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은 방각본, 필사본, 활자본 등이 두루 있어 이본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경판 36장본 혹은 필사본 박순호 38장본이 선행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상호간 차이는 심하지 않은 듯하다. 여기서는 완판 43장본을 대상으로 핵심단락을 추출하기로 한다”(이지영, 앞의 논문, 2000, 19쪽).

18) 서경희, 앞의 논문(1998a).

19) 이대형, 「<소대성전>의 한문본 <大鳳記>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4권(2011).

20) 유춘동,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 다쿠소쿠(灌足) 문고 소장, 조선전적(朝鮮典籍)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8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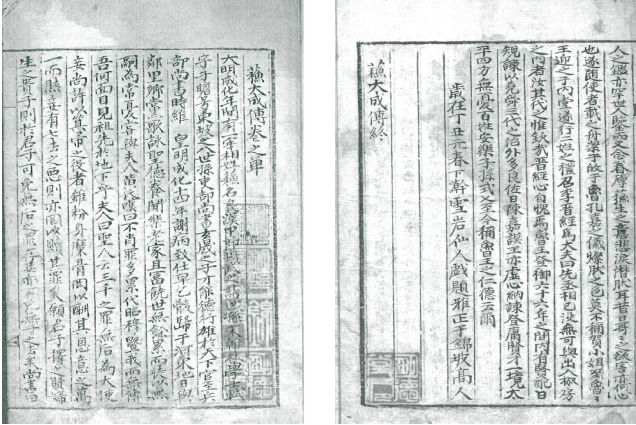


그림1-신용하본 <소대성전>의 첫 면과 마지막 면

존재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서강대학교 소장 <대봉기>는 그전까지 한문본 <소대성전>의 존재가 확인된 적이 없었던 까닭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 기록된 한문본 <소대성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여겨지기도 하였다.²¹⁾

이 글에서 이번에 보고하는 신용하본(慎鏞廈本)²²⁾ “蘇大成傳”은 <소대성전>을 제명(題名)으로 하는 유일한 한문본으로,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다. 신용하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재직 당시 입수하셨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신용하 문고에 기증된 상태이다. 신용하본의 표제(標題)는 “蘇大成傳 單”이며, 권수제(卷首題)는 “蘇大成傳卷之單”이다. 단권

21) 이대형은 서강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대봉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는 ‘韓人’이 지은 漢字 소설 목록 가운데 <소대성전>이 들어 있는데 이전에는 한문본 <소대성전>은 발견된 적이 없었다. 여기서 처음 소개하는 한문 필사본 <대봉기>는 <소대성전> 이본에 해당한다.” 이대형, 앞의 논문(2011), 190쪽.
 22) 신용하 선생님 덕분에 귀중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후부터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소대성전> 한문본을 ‘신용하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신용하 선생님께서는 자료를 입수하게 된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필자의 논문을 격려해 주시기까지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 재직 당시 문과대에 들르는 고서상에게 종종 고서를 구입하셨는데, 이 고서상은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실에 들러 전공분야에 따라 서적의 목록을 제시하고 판매했다고 한다. <소대성전> 한문본은 신용하 선생님의 전공분야의 서적이 아니었지만 책을 팔지 못해 곤란해하던 고서상의 간곡한 권유로 구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때 선생님께서 <소대성전>을 거두어주시지 않았다면, <소대성전> 한문본은 『조선서지』의 목록에만 남아있을 뿐 영원히 일실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표1-신용하본의 서지사항

標題	蘇大成傳 單	卷首題	蘇大成傳卷之單
版種	木版本(異本種: 筆寫本)	版心題	無
匡郭	四周單邊, 半郭: 22.0×16.0 cm	版心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卷冊數	1卷	張數	21張
界線	有	行字數	10行 27字 內外

분량이며, 권말에 “歲在丁丑元春下澣 雪岩仙人戲題 雅正于錦坡高人”이라는 필사기(筆刊記)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1817년 혹은 1877년 무렵 필사된 자료가 아닌가 한다.

총 장수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수(行數)는 10행이고 자수(字數)는 27자 내외이다. 일견 간본(刊本)으로 여겨지나, 광곽(匡郭)을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두르고, 계선(界線)이 있는 인출(印出)한 종이 위에 일정한 필체로 필사한 자료이다. 오서(誤書)한 흔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도 이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신용하본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신용하본은 “大明成化年間”을 배경으로, ‘소대성’의 부친인 ‘소양(蘇良)’의 가계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소양은 ‘소무(蘇武)’의 24세손, ‘소동파(蘇東坡)’의 8세손, 장편가문소설 <소현성록(蘇賢聖錄)>의 주인공 ‘소현성(蘇玄晟)’의 아들로 소개되었는데 전반부의 서사단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명성화연간에 전직 병부상서 ‘소양’은 ‘소무’의 24세손이며, ‘소동파’의 8세손이며, ‘소현성’의 아들이다. 세상의 변화함을 꺼려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낸다.
2. 소양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근심한다. 어느 날 서역 영보산 ‘청룡사’에서 노승이 찾아와 절을 중수할 비용을 적선하기를 권한다. 이에 소양은 황금 50근과 백금 1,000근을 시주한다.
3. 노승이 다녀간 수일 후 부인 황씨가 기이한 몽사를 겪는다. 청의동자가 동해용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비를 그릇 내린 죄를 입어 인세로 쫓겨나 부인에게 의탁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말하는 꿈을 꾸다.
4. 몽사(夢事) 후, 부인이 잉태하여 남아를 생산한다. 아이의 외모와 소리가 비범하여 이름을 ‘대성’으로 짓는다.
5. 대성이 점점 자라 10세에 학업이 숙성한 수준에 이른다. 소양이 홀연 병을 얻어 부인에게 대성을 간곡히 부탁한 후 별세하고 뒤이어 부인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별세한다.

6. 대성이 부모의 삼년상을 극진히 지내는 동안 가산이 탕진된다. 이에 노복에게 남은 가산을 맡기고 집을 떠나기로 한다.
7. 대성은 수중에 은자 50냥만 가지고 소주(蘇州)에 이른다. 심야에 96세 노모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 밤새우는 72세 노인의 사연을 듣고 수중의 재산을 모두 내준다.
8. 대성은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기갈(飢渴)에 시달리며, 청주(靑州)에 이르게 된다. 이때 청주에는 나이가 들어 조정에서 은퇴한 '이승상'이 부인 '왕씨'와 삼자이녀(三子二女)를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았다.
9. 막내 채봉은 선녀가 동해용자의 배필임을 알리는 태몽 속에서 탄생했다. 세상에 드문 뛰어난 자질과 용모로 성장하여 부모가 배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0. 어느 날 승상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청룡이 후원 아래 서렸다가 붉은 구름을 두르며 솟아오르는 꿈을 꾸다. 꿈의 내용이 기이하여 찾아 나서니 버드나무 그늘 아래 걸인의 형상을 한 대성이 잠들어 있다.
11. 승상이 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근본(根本)을 물어보나 대성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승상의 계속되는 설득에 자신의 부친이 전 병부상서 소양이며, 소현성의 현손임을 밝히고 그간의 역정(歷程)을 전한다.
12. 승상이 대성을 집에 데려와 후원의 서실(書室)에 머물게 하고 왕부인에게 장차 채봉과 혼약시킬 것이라고 알리자 부인이 꺼린다. 승상이 대성과 채봉을 대면시키고자 하자 채봉이 부명을 거역하지 못해 억지로 나와 대성과 만난다.
13. 대성과 채봉이 서로를 살피면서 상대에게 뛰어난 자질이 있음을 깨닫는다. 승상이 대성에게 술을 권하고 대성과 채봉에게 시로 화답하게 한다.
14. 승상이 홀연 득병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승상이 왕부인에게 3년 후 채봉과 대성의 혼사를 이루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대성에게도 채봉과의 일생을 맡긴다고 유언하며 별세한다.
15. 승상의 아들 이생 등이 고향으로 돌아와 통곡하며 장례를 치른다. 대성이 조문하자 왕부인이 이생 등에게 대성을 둘러싼 전후 사정을 전한다.
16. 대성은 이생 등에게 승상과 같은 명감이 없는 것을 알고 실망하여 학업을 전폐하고 주야로 잠만 청한다. 왕부인은 이러한 대성의 행동에 더욱 분노하여 대성을 일체 돌아보지 않고, 비복들도 대성을 박해하여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한다.
17. 대성이 박해를 견뎌내자, 왕부인은 이생 등과 대성을 내칠 계교를 모의한다. 승상의 유언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객 '초현(楚玄)'을 황금으로 매수해 대성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18. 초현이 밤을 틈타 대성의 서실로 침입하나, 대성은 자객의 침입을 예감하고 있었고 자객을 꾸짖어 개유하고자 한다. 초현이 공격을 멈추려 하지 않자, 대성이 단번에 빼어 버리고 이를 모의한 이생 등도 모두 죽이고자 하나 승상을 떠올리며 검을 거둔다.
19. 대성이 벽상에 시를 남기고 서천으로 향한다. 이생 등이 이튿날 대성의 방에서

자객의 시신과 대성의 시를 발견하고 아연해한다.

20. 대성이 홀연 떠났다는 소식이 채봉에게까지 이르고, 왕부인을 찾아가 대성이 집을 나간 연고를 듣고자 한다. 왕부인이 채봉이 규중처자(閩中處子)로서 외객(外客)의 안부에 대해 궁급해한다며 꾸짖자, 채봉이 정색하며 대성에게 수절할 뜻을 더욱 분명히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하본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소개한 전반부의 서사단락은 12장까지의 분량에 해당된다. 전반부의 내용은 동해용왕의 아들인 소대성이 인세(人世)에 적강(謫降)해 겪는 고난들을 중심으로 한다. 대성은 비범한 자질을 타고나 10세에 이미 학업이 숙성(夙成)하나, 부모가 홀연 죽음에 이르면서 고난을 겪게 된다. 부모의 상을 치르는 사이 가산은 흩어지고, 대성은 은자 50냥만 가지고 길을 떠난다. 소주현경(蘇州縣境)에 이르러 노모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우는 노인을 만나는데, 대성은 수중의 은자를 모두 내주어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준다. 수중에 가진 것이 전혀 없어 유리걸식하며 청주(靑州)에 이른 대성은 이승상에 의해 구조되고, 이승상의 딸 '채봉'의 배필로 간택된다. 이승상이 갑작스럽게 병사(病死)하자, 평소 대성을 못마땅해하던 왕부인과 이생 등, 비복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박대하며 자객을 통해 살해를 모의하는 지경에 이른다. 지금껏 이승상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혼인을 이루고자 박대를 묵묵히 견디던 대성은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상의 내용은 그간 존재가 확인된 이본들의 대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소대성의 가문에 대한 서술이 자세하게 설정된 부분이 특이하다. 다른 이본들은 소대성의 부친 소양의 가계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간략히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소대성이 여정에서 만난 노인의 나이가 60세 혹은 70세가 아니라 72세로, 또 노인의 모친의 나이가 96세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것도 다른 이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한편 소대성의 여정이 '소주(蘇州)'에서 '청주(靑州)'로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것도 눈이 가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이본들은 소주현경에서 노인을 만났다는 내용만 제시하고, 소대성이 이리저리 빌어먹다가 청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轉轉乞食至靑州縣)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²³⁾ 이

외에는 “소현성(蘇賢聖)”을 “蘇玄晟”으로, “조현(혹은 조영)”을 “楚玄”으로 인명의 한자 표기를 달리하는 등의 미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후반부는 9장의 분량으로, 소대성이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위주로 서사가 진행된다. 후반부의 서두는 처가를 떠난 소대성이 정처 없이 길을 행하다가, 광덕왕이 보낸 하례(下隸)의 도움으로 대해(大海)를 건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반부의 서사단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성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대해(大海)를 만나게 된다. 홀연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어선이 지나가 도움을 요청한다.
2. 피리를 불던 선인(船人)이 소리를 그치고 대성을 배에 태우고 빠르게 약수를 건너자, 대성이 예상외의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놀란다. 놀란 대성에게 선인은 자신이 동해(東海) 광덕왕(廣德王)의 하례(下隸)임을 밝히며 선과(仙果)를 내주어 먹게 한다.
3. 대성이 깊이 사려하고 배를 떠나 서쪽으로 향한다. 수일 동안 길을 행해 험준한 고개를 넘고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니 별건곤(別乾坤)이 펼쳐지고 한 노승이 대성을 맞이한다.
4. 노승이 부친 소양이 청룡사에 시주한 일화와 부처의 명으로 대성이 접지된 사연을 전한다. 대성이 처음에는 노승의 말을 믿지 않고 집이 반궁하여 15세부터 걸식하며 고생한 사연을 말하자, 노승이 위로하고 앞으로 4년간 함께 머물게 될 인연이라고 설명한다.
5. 모든 사연을 전해 들은 대성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마음을 진정한다. 이후 청룡사에서 노승과 함께 불경과 병서를 의논하며 지낸다.
6. 성화(成化) 36년, ‘북흉노(北匈奴)’와 ‘선우(單于)’가 결탁해 중원을 침략하기로 한다. 정병 100만과 장수 1,000여 원을 거느려 동도(東都) 밑 70여 성을 항복받는다.
7. 천자가 크게 놀라 50만 병사를 일으켜 대장군(大將軍) ‘적홍(狄弘)’과 거기장군(車騎將軍) ‘손청(孫靑)’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다. 명군이 1,400여 리를 부지런히 진공해 대문(岱門)에 이르러 적군과 마주하게 된다.
8. 양진(兩陣)이 대립 중 적홍이 호왕(胡王)을 꾸짖자 호왕이 분노해 병사들로 하여금 명진을 공격해 수백 명을 해친다. 이에 손청이 만여 명의 병사들과 진격해 호진을 크게 물리친다.
9. 명군의 승승장구에 호왕이 분노하여 선봉을 배어 버리고, 이른 새벽 명진을 급습하는 계교를 실행한다. 호군의 급습에 적홍, 손청이 맞서다 달아나고, 양군의 병사들이 대결 중에 갑자기 뇌전풍우(雷電風雨)가 몰아치면서 불어날

23) 서강대 소장 <대봉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소대성이 노인에게 가진 은자를 내어주고 ‘빌어먹으며 다니다가 청주에 이르렀다(村村轉乞行到靑州)’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천(湫川)에 많은 수가 빠져 죽는다.

10. 양진이 각각 병사들을 잃은 상태에서 명진은 팽천(彭川)에 주둔하고, 호왕은 서북으로 달아난다. 다음 날 호왕은 기병 2만을 내어 팽천에 이르고, 명군을 공격할 묘계로 양패(佯敗)를 생각한다.
11. 그 다음 날 호왕이 적홍 등과 한창 대결을 펼치다가 거짓으로 달아나고, 이를 명군이 추격한다. 호왕이 대기하던 기병을 내어 협격(挾擊)하고, 적홍과 손청을 비롯한 명군이 목숨을 잃는다.
12. 천자는 패전 소식에 충격을 받고 친정(親征)하려 한다. 병부상서 '화원(花元)'이 천거한 본부사랑 '서원춘(徐元春)'을 선봉으로, 화원을 원수로 삼아 정병 5만을 거느리게 하고, 천자는 친히 정병 30만을 거느려 출정한다.
13. 화원과 서원춘이 전후로 군을 잘 경영해 호군을 위협하고, 죽을힘을 다해 호군을 물리쳐 퇴각하게 한다. 명군의 기세에 놀란 호왕이 정병 8만을 내고, 화원과 서원춘이 패사(敗死)한다.
14. 승리한 호군이 한양으로 진군을 계속하고, 천자는 패전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천자가 최후의 방법으로 도성을 등진 채 서문(西門)에서 죽음을 각오한 전투를 준비한다.
15. 대성이 청룡사에 이른 지 5년이 흐른 어느 날, 공중으로부터 천문(天門)이 열렸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성이 천문을 통해 북방의 호적이 중원을 침입함을 알고 번뇌한다.
16. 노승이 대성에게 중원에 난리가 났으니 서둘러 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성이 놀라 노승에게 난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꿈속에서 세존을 따라 옥경(玉京)에 갔다가 익성(翼星)이 자미성(紫微星)을 침범하려 하는 사연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답한다.
17. 대성이 지금이 난세인 줄 알지만 적수단신(赤手單身)에 처해 방도가 없다고 한탄하자, 노승이 협실에서 태화산(太華山)에서 용이 지키고 있던 보검을 꺼내준다. 노승이 여기서 수백여 리를 행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대성이 사례하고 길을 떠난다.
18. 대성이 길을 행하던 중, 날이 저물고 주변에 머물 인가가 없어 난감해한다. 수풀 사이에서 청의동자가 나와 대성을 알아보며 불이 밝게 밝혀진 초옥으로 인도한다.
19. 대성이 방에 들어서자, 죽은 이승상이 반갑게 맞아준다. 이승상이 공명을 이룬 후 '채봉'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보신갑(保身甲)을 전해준다.
20. 이승상이 대성에게 호왕에 대해 경고하고 동해용왕의 청충마가 여기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지시한다. 대성이 사례하자 홀연 초옥과 승상이 사라지고 없다.
21. 대성이 이승상의 지시대로 수십 리를 행해 갈건야복의 노인이 망아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발견한다. 노인이 말이 사나워 장차 굶겨 죽이려 한다고 말하자, 대성이 그 말을 청하여 천자가 위협에 빠진 전장으로 향한다.
22. 이때 천자는 서문에서 좌우선봉을 맡은 장수들과 정병 2만을 거느려 전장에

나아가고자 한다. 호왕이 천자의 좌우선봉을 배자 천자가 크게 놀라고 명군의 전열이 흐트러진다.

23. 이를 지켜보던 대성이 말을 달려 전장에 돌입해 호군을 이리저리 본다. 원수 청곤(靑峴)이 대성의 성명과 집안 내력을 알게 되고, 자신의 원수직을 대신하길 권한다.
24. 천자가 호군을 물리치는 대성의 활약을 보고 정체를 궁금해하자, 청곤이 전직 병부상서 소양의 아들임을 밝힌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대성을 원수로, 청곤을 후원장(後援將)으로 삼는다.
25. 호왕이 대성의 활약을 보고 진정한 천하영웅으로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적수임을 깨닫는다. 병사 5,000명을 동원해 자운동(紫雲洞)에 불을 질러, 그곳으로 대성을 유인하는 계교를 세운다.
26. 호왕의 계교에 빠져 대성이 불길에 갇혀 자살하려다가, 화덕진군(火德眞君)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천자가 대성이 죽은 줄 알고 절망하다가, 무사귀환하자 기뻐한다.
27. 호왕이 서문을 공격하고자 하나 무사귀환한 대성을 보고 퇴각한다. 다음 날 호왕이 장수들에게 명해 동틀 무렵 장안의 동문(東門)을 공격해서 대성의 주위를 돌리고, 본진(本陣)이 있는 서문을 공격해 천자를 사로잡아 항복을 요구한다.
28. 대성이 동문에서 호왕의 계교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서문으로 돌아가 호왕을 베고 천자를 구한다. 천자가 대성의 공을 치하하며 '천하병마원수(天下兵馬元帥) 겸 좌승상(左丞相) 노국공(魯國公)'으로 삼는다.
29. 대성이 노국에서 만조백관을 거느린 지 몇 달 만에 노국이 태평해지고, 승상이 노왕에게 숙녀를 간택할 것을 권유한다. 노왕은 청주 땅에 사는 이승상의 딸을 간택하기 위해 사자를 보낸다.
30. 대성이 집을 나간 이후 채봉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귀환을 기다리는 날날을 보낸다. 어느 날 채봉은 대성이 청룡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고 대성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애통해한다.
31. 노왕이 보낸 사신이 도착해 그간의 사정을 담은 서찰을 전하고, 채봉이 노국으로 가 대성과 해후하여 성대한 혼례를 치른다.
32. 왕부인과 이생 등이 지난날을 부끄러워하고 대성은 이들을 용서한다. 대성이 노왕에 오른 지 66년 동안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렸고, 그 인덕(仁德)이 오래도록 칭송된다.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다른 이본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대성이 집을 떠나 청룡사에 은거하는 내용, 노왕으로 봉해져 채봉과 결연하고 선치를 베푼다는 결말부의 내용은 다른 이본들과 거의 동일하지만, 북흉노와 선우의 침략을 알리는 14장부터 군담이 종결되는 19장까지는 상당히 다른 지향을 보인다.

장수들의 이름, 전장의 공간, 대결 양상부터 완전히 상이하다. 물론 이본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용하본은 정도의 차이를 넘어 전혀 다른 인물과 지명, 대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신용하본에 등장하는 명군 장수들의 이름은 ‘적홍(狄弘)’, ‘손청(孫靑)’, ‘화원(花元)’, ‘서원춘(徐元春)’, ‘청곤(靑峴)’ 등으로, 다른 이본들에 등장하는 ‘경태’, ‘유문영’, ‘호철’, ‘이분지’, ‘모세징’ 등은 여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호군 장수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신용하본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굴통’, ‘호진’, ‘극한’ 등이 등장한 바 있는데, 신용하본에서는 인명이 따로 언급되지 않고 ‘선봉(先鋒)’, ‘제장(諸將)’ 등으로 지칭된다.

전장의 공간이 다르게 설정된 부분도 대결 양상과 함께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하본에서 전장의 공간은 대문(岱門), 치천(澗川), 팽천(彭川), 서문(西門) 등으로 제시되었다. 호군에 의해 동도의 수십 성이 함락되자 천자의 명령으로 적홍과 손청이 이끄는 선봉대가 출정하는데, 명군과 호군이 처음 대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대문이다. 대문에서 명군의 선봉대는 첫 승리를 거두는데, 이에 분노한 호왕은 이른 새벽 급습으로 보복하려 한다. 이렇듯 양군이 대결하다가 치천에 이르렀는데, 갑작스럽게 뇌전풍우(雷電風雨)가 몰아치면서 강물이 불어나 많은 병사들이 익사하게 된다. 치천은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 언급된 바 있다. 지황(地皇) 4년에 왕심(王尋)과 왕읍(王邑)이 곤양(昆陽)을 지키고 있었는데, 광무(光武)가 남양(南陽)에서 군대를 일으켜 곤양을 공격할 때 큰 바람이 불고 우레가 쳐서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물을 붓듯이 비가 쏟아져 치천의 물이 넘쳤다고 한다. 치천의 물이 넘치면서 왕심과 왕읍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왕망의 난이 평정되었다는 것이다.²⁴⁾ 신용하본에 등장하는 치천도 이러한 『태평어람』의 고사(故事)를 참고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용하본 외에 이본들에서는 치천 등 고사와 관련된 지명이 두드러지게 언급되지 않는다. 몇몇 이본에 따라 호군이 침략하여 ‘양관(陽關)’에 이르렀다고 알리는 장면을 더러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24) 『太平御覽』卷876, 「咎徵: 風」第7. “地皇四年, 大風毀脫蟹門。其年, 司徒王尋, 司空王邑守昆陽, 光武起兵南陽, 至昆陽攻之。大風雷, 屋瓦皆飛, 雨下如注, 澗川盛溢, 尋, 邑乘死人而渡。王尋見殺, 軍人皆散走。王邑還長安, 莽敗, 俱殺之。”

외에는 명나라의 도읍인 낙양(洛陽), 천자가 호왕에게 쫓기는 황강(黃江) 등이 제시될 뿐이다.

한편 신용하본에서 명군의 선봉대는 팡천(彭川)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호왕의 양패(佯敗)에 속아 궤멸을 당한다. 호군은 호왕의 지휘로 '화원(花元)', '서원춘(徐元春)' 등을 모두 물리치며 낙양의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된다. 천자는 최후의 방법으로 도성을 등진 채 서문(西門) 앞에서 결연히 전투를 준비하지만, 호왕이 서문 앞을 지키던 장수들을 죽이고 승세를 잡는다. 바로 이때 소대성이 청총마를 타고 나타나 활약을 시작하는데, 신용하본은 소대성이 등장하는 시점이 다른 이본들에 비해 뒤로 미루어져 있다. 다른 이본들의 경우, 소대성의 활약상을 이보다 앞에 제시하여 명장(明將)들을 연달아 베는 '선우'를 소대성이 직접 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호왕과 소대성의 대결도 일대일 대결, 진법, 도술 등으로 다채롭게 다루었다. 이에 비하여 신용하본은 전투의 후반부(17장)에 소대성을 등장시키고, 장안의 서문과 동문 앞을 오가며 활약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묘사한 바 있다. 다른 이본들에 존재하는 천자가 혈서로 쓴 항서를 요구받는 장면이나, 소대성이 천자를 구원하기 위해 청총마로 도성과 황강을 단숨에 오가는 속도감 있는 전개 등 극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소대성의 반경(半徑)이 동문과 서문으로 제약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Ⅲ. 신용하본 〈소대성전〉과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이본들과의 관계

앞서 신용하본의 서두는 다른 어떤 이본들보다 소대성의 선조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대성전〉 이본들 중 서두에서 소양과 소대성의 선조를 언급하는 이본들의 경우, 소현성을 언급하고 소양이 청고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서술을 이어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신용하본은 소양의 선조를 한대(漢代) '소무(蘇武)'로, 송대(宋代) '소동파(蘇東坡)'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소현성(蘇玄性)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신용하본】대명성화연간에 한 재상이 있었으니, 성은 소요 명은 양으로, 한대(漢代) 주량장 소무(蘇武)의 20세손이요, 송대(宋代) 한림학사 소동파(蘇東坡)의 8세손이요, 이부상서 소현성(蘇玄晟)의 아들이다. 재능과 덕행이 천하에 으뜸이요, 벼슬은 병부상서에 이르렀다. 성화 40년에 병을 핑계 삼아 벼슬을 사양하고 하동 땅에 돌아와, 이웃, 향당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성인을 찬양하고 덕을 기르며 노년을 즐겼다.²⁵⁾

그동안 소대성의 부친 소양의 가계설명은 이본의 계열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관본과 경관본 계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완관본과 완관본 계열의 이본들에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알려져왔다.²⁶⁾ 신용하본 외에 다른 이본들의 양상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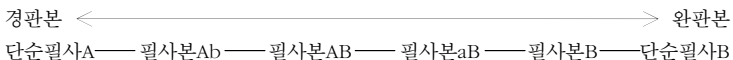
【경기대본】화설이라 디명성화연간의 히동 디평 쌍의 일의 명관이 잇시되 성은 소요 명은 양이요 자난 군현이라 옛날 송상 강능후 소현성의 현손이라 소문이 디디로 청명하여 소량의 이르러 병부상서지이라 빛난 일흠이 조야의 진동하난지라 상서 그 문명이 변성함을 혐의하여 상소하고 벼살을 갈고 디평의 도라와 그 고조부의 둔적함을 썬바다 시스로 처사도야 소로 밧갈기난 고기 낙그거날 일습아 세월을 보늬딘이²⁷⁾

【완관 43장본】디명성화연간의 쇼쥬 사의 혼 명현이 잇시되 성은 쇼노 명은 양이노 즈는 경이니 옛날 쇼현성의 현손이라 세디로 강노와 공후작늑이 썬나지 인이히더니 쇼양의 미쳐 벼술이 병부상서로 일흠이 조정의 진동하디라 세상변화를 혐의하여 벼술을 바리고 고향의 도라와 농부어옹을 겸히야 세월을 보늬니²⁸⁾

【경관 36장본】디명성화년간의 일위 지상이 이시되 성으 쇼요 명은 량이라 지조와

25) 신용하본 〈蘇大成傳〉, 1장. “大明成化年間, 有一宰相, 性蘊名良, 漢中郎將武之二十世孫, 宋翰林學士載字子瞻號東坡之八世孫, 吏部尙書玄晟之子, 才能德行雄於天下, 官至兵部尙書. 時維皇明成化十四年, 謝病致仕早乞骸, 歸于河東地. 日與鄰里鄉黨, 歌詠聖德養間樂老.”

26) 전술한 바와 같이, 서경희는 〈소대성전〉 이본의 계통이 경관계와 완관계로 양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사본과 구활자본 이본들을 모두 경관본과 완관본 계열의 하위 유형으로 귀속시켰으며, 방각본의 서두(소대성의 부친 ‘소량의 집안내력’이 존재 하던 경관계, 존재하지 않으면 완관계)와 결말 양상(‘소대성의 죽음’은 경관계, ‘소대성의 선지’ 혹은 ‘처가와외 해원’은 완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 방각본의 대표형을 A-1, A-2, B-1, B-2로 분류하였으며, 필사본과 활자본은 방각본의 대표형에 귀속된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서경희, 앞의 논문(1998a), 35-36쪽.



27) 경기대본 〈蘇大成傳〉, 1장.

28) 〈쇼디성전이라〉 완관 43장본, 1장.

덕함이 일국의 진동하더니 일즉 룡문의 올라 벼슬이 병부상서의 니르러 명망이 도야에
덥허더니 일즉 나라를 하직하고 고향 회동싸히 도라와 한가흔 사람이 되어사니 가산은
요부하여 세상의 거릴거시 업스되²⁹⁾

필사본인 경기대본과 완관 43장본의 경우, 소현성을 소양의 선조로 언급하고 있는데 서술의 편폭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경기대본은 완관 43장본과 같이 소현성의 이름만 거명한 것이 아니라, <소현성록>의 서두에서 소현성을 소개하는 서술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인물됨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³⁰⁾ 신용하본은 경기대본과 같이 소현성과 소양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소현성과 소양이 부자(父子)라는 좀 더 직접적인 혈연관계 속에 있다고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완관 43장본과 같이 간략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소무로부터 이어지는 유서 깊은 가문이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특이한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이본들과 다르게 경관 36장본은 소양의 가계를 다루지 않고 소양의 요부(饒富)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설정은 박순호 소장 38장본³¹⁾, 동양문고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신용하본은 전반부의 중심 내용인 처가와외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다른 이본들과 구별된다. 선행연구에서 처가와외의 갈등 문제는 <소대성전>을 유형화³²⁾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신용하본과 다른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의 양상을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하본】 대성이 통곡하며 이생 등에게 선대인게 입은 두터운 은혜를 이르면서

29) <쇼덕성전 권단> 경관 36장본, 1장.

30) 경기대본은 필사가 중단되어 후반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료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선본(善本)으로 논의된 완관 43장본과 다르게 서두에서 소양의 가계를 온전히 다룸으로써 작품의 주요 국면을 한결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후 서사가 소대성의 가문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유진, 「신자료 <소대성전(蘇大成傳)> 이본의 현황과 서사적 특징: 경기대학교 소장본, 필암서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3권(2017).

31) 박순호 소장 38장본(月村文獻研究所 編,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7, 昨晟社, 1986).

32) 서대석은 <소대성전> 유형이 주인공이 곤궁해서 처가의 박대를 못 견디고 쫓겨났고 그 뒤 성공해서 처가를 도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靑邱野談』, 『東野彙輯』, 『溪西野談』, 『海東野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위 박대담”이 작품을 창작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서대석, 앞의 책(1985), 77-84쪽.

도, 속으로는 이생 등이 승상의 만분의 일도 닮지 못했음을 탄식하였다. 이후로는 의관을 전폐하고 이생 등을 만나기를 꺼렸다. 이러한 대성을 왕부인이 더욱 못마땅하게 여겨 대성의 안부를 묻거나 상중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비복 등도 대성을 하대하여, 하루에 한 때만 겨우 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배고픔과 목마름이 심해져 대성이 오래 버티지 못할 지경임을 스스로 깨달았으나, 승상의 삼년상을 마치고 약속한 혼례의 때를 기다리고자 하였다.³³⁾

【필암서원본】 인하여 별세하시니 일가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소성이 초종에 절을 극진이 하니 인인이 칭찬하더라 이적의 니싱 등니 전부를 들고 주야로 내려와 승상 영귀여 동곡홀시 소성이 조문을 전하니 니싱 등이 아지 못하미 왕부인에게 못즈온디 부인이 소성의 전후말을 다하니 싱 등이 드을 달음닐너라 슈일 후의 서다의 나와 위문할시 소성이 이싱 등을 보니 하나도 부친의 명감업난지라 심년에 혀오디 승상이 세상을 바리시미 뒤라셔 뒤성을 알아보고 이후로난 서책을 전퍼하고 의관을 전퍼하여 잠자기만 일습다가 승상의 장닐 당하미 마지 못하여 의관을 정제하고 هنگ지로 장수를 극진이 지니고 도라와 서당의 눕고 이지 아니하니 소성의 겨우른 소문이 일가의 자자하더라.³⁴⁾

【완관 43장본】 인하여 별세하시니 일가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소성이 초종에 을 극진히 지니니 칭찬 안이호 리 읍더라 이적의 이싱이 승상의 전부를 들고 주야로 내려와 승상 영위에 통곡홀시 소성이 조문을 전하니 니싱 등이 아지 못하미 왕부인에게 못즈온디 부인이 소성의 전후 말을 다한디 싱 등이 들을 썩름이라 슈일 후 서당의 나와 위문할시 소성이 니싱 등을 보이 하나도 그 부친 명감이 읍난지라 헤오디 승상이 세상을 바리시미 뒤 뒤성을 알아노 호고 일후로 서책을 전퍼하고 의관을 폐하고 잠자기만 일삼더니 승상의 장일이 당하미 마지 못하여 의관을 정제하고 هنگ지로 장수를 극진히 지니고 돌아와 서당의 눕고 이지 아니하미³⁵⁾

【경관 16장본】 언파의 졸하니 시년이 칠십오세라 일기 망극하여 부인과 소제 크로 괴절하고 소생 소성은 친히 초종을 잡아 치상하더니 니싱 등이 문부하고 도라오미 부인과 소제 더욱 망극하여 하더라 쇼성이 니싱 등 왓시플 들고 조문을 동하니 니싱 등이 아지 못하여 부인과 못즈온디 부인 이 쇼성의 근본을 주시 니르니 니싱 등이 쇼성을 마즈 조문을 받든 후의 쇼성을 살펴보니 괴위 웅장하여 장군의 형상이라 심중의 썩리는 잠깐 말하다가 드러가니 쇼성이 비로쇼 니싱 등 보고 승상의 관인덕을 본브드리 업스플 못너 혼탄하고 이후로 서책을 물니치고 잠만 즈더니 니싱 등이

33) 신용하본 <蘇大成傳>, 9장. “大成泣謂, 生等以先大人厚恩. 然心嘆三子之不如丞相之万一. 自後全廢衣冠, 不與生等相好. 肆以王氏益加不平, 問聞相阻. 婢僕等亦下待之, 一日取食不過一時. 因於飢渴心常不寧, 大成雖知其勢不長久, 姑留此者爲其待, 三霜之後婚禮之日也.”

34) 필암서원본 <뒤성전>, 14장.

35) 완관 43장본 <쇼뒤성전이라>, 11장.

턱일하여 장사를 지너미 소싱이 마지 못하여 니러는 장사를 지너고 인하여 말을 전폐하고 니싱 등으로 상종치 아니 하니 니러무로 부인 더욱 불합하여 혼번도 무라미 업고 비복 등이 쯤한 천딴하며 호로 혼썬을 먹이니 기갈이 자심하미 장구치 못할 줄 알고 생각하되 아직 머물너 저의 혼스를 기다리리라 하더라.³⁶⁾

신용하본은 소대성을 소무-소동파-소현성-소양을 이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서두의 설정에 따르면, 소대성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존대를 받으며 이승상과 약속한 채봉과의 혼인을 당당히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승상이 별세하자 소대성의 처지는 급변하게 된다. 평소 그를 못마땅해하던 왕부인의 주도로 박대를 당하며, 이승상의 일가뿐 아니라 비복(婢僕)까지 그를 하대한다. 비복들은 소대성을 상전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겨우 가져다주며 굶주리게 만든다.

반면 필암서원본과 완관 43장본³⁷⁾은 처가와외의 갈등에 비복들이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비복들이 박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대성은 하대나 기갈을 겪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필암서원본과 완관 43장본에서 소대성은 소현성-소양을 이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설정된 바 있는데, 이승상의 별세 후 그를 못마땅해하는 것은 왕부인과 왕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아들들뿐이다. 반면 경관본은 소양의 가계를 다루지 않고 소양의 요부(饒富)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중 경관 16장본은 전체 분량상 처가박대의 양상이 가장 소략할 듯도 하나 신용하본과 마찬가지로 일가뿐 아니라 비복까지 박대에 참여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 외에도 소대성의 박대에 일가와 비복이 모두 참여하는 이본에는 박순호 소장 38장본³⁸⁾, 동양문고본³⁹⁾, 연세대 소장 78장본,

36) 경관 16장본 〈소덕성전〉, 9-10장.

37) 필암서원본과 완관 43장본은 대체로 동일한 내용과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암서원본은 완관 43장본과 가장 친연성을 보이는 필사본 이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필암서원본은 완관 43장본에 보이는 서사단락과 분량에 편중됨이 없고, 생략이나 축소한 표현이 없다는 측면에서 구별된다. 이유진, 앞의 논문(2017).

38) 박순호 소장 38장본(月村文獻研究所 編, 앞의 책, 1986, 435쪽). “이싱 등이 턱일하여 장사를 지너고 소싱이 마지 못하여 한가지로 장사를 지너 후에 의관을 전폐하고 잠자기를 일삼음이 이러무로 부인이 더욱 불평이 여기더라 비복이 천딴하여 하로 한씩씩 먹이니 기갈이 자심하더라.”

39) 동양문고본 〈蘇大成傳〉 卷之一, 27-28장. “니싱 등이 턱일안장하되 소싱이 마지 못하여 그 니러는 장사를 지너고 인하여 의관을 전폐하고 니싱 등을 상종치 아니하니 니러무로 부인이 더욱 불합하여 혼번도 무르미 업고 비복 등이 쯤한 천딴하며 호로

서강대 소장 〈대봉기〉 등 필사본과 구활자본⁴⁰⁾ 등이 있다.

한편 신용하본에서 감지되는 가장 특별한 개성은 군담의 양상에 있다. 다른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설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담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을 이본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밑줄 친 부분은 장수명과 지명이다.

【신용하본】 천자가 크게 놀라 50만 군사를 일으켜, 대장군 '강홍', 거기장군 '손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호군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대군이 밤을 틈타 부지런히 1,400리나 되는 길을 행해 대문(岱門)에 이르렀다. 양군(兩軍)이 서로를 제어하려고 견고히 지켜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강홍이 비장 '서우춘(徐牟春)'으로 하여금 병사 1,000여 명을 거느려 말에 탄 채로 질욕하여, "너 호왕야, 감히 성화(聖化)를 거스르고 중국을 침략해서, 하늘이 진노하사 나에게 명하여 너를 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속히 나와 항복하라"고 이르게 하였다.⁴¹⁾

【필암서원본】 횡군 보름만의 낭관지경의 일으려 적군이 보호되 적병이 산야을 더퍼 질을 막아다 허가날 경터 문영으로 더부러 즉시 진문의 올라 적진을 바라보니 무수한 오랑캐 질을 작아 진을 처거날 경터 문영으로 크게 위어 왈 네 엇더흔도 적이관디 감이 질을 막난다 흥노 디왈 노은 호국 웅천디왕이라 천명을 바다 디병을 일위여 명노를 멀혀 천하를 평정코져 허가날 엇던한 적병이관디 천위를 아지 못하고 감히 항거한다 경터 디로하야 크게 쭈지져 왈 무지한 오랑캐야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한다 하날니 두렵지 아니하냐 천조 신명하스 내히 반하는 줄을 아르고 날을 명하스 네의 죄를 무르아 하시디 디군을 모라 왔나니 네 만일 천의를 순종하면 죄를 용사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서북오랑캐을 다 함몰하리라⁴²⁾

한씩을 주니 괴같이 자심하여 장구치 못할 줄 알고 생각하되 아즉 머물러 저의 혼수를 기다리리라 하더라.”

40) 신명서원본 상편 〈덕성용문전〉, 12-13쪽. “언파의 줄하니 시년이 칠십오세라 일가 망극하야 부인과 소져 조로 괴절하고 소싱은 천히 초종을 잡아 치상하더니 리싱 등이 문부하고 도라오리 부인과 소져 더욱 망극하야 하더라 소싱이 리싱 등 왓슴을 두고 조문을 통하니 리닝 등이 아지 못하야 부인의 못즈온디 부인이 소싱에 근본을 자서이 이르니 리싱 등이 소싱을 마저 조문을 바든 후 소싱을 살펴보니 괴우 웅장하야 장군의 형상이라 심중의 씨라나 잠간 말하다가 드러가니 소싱이 비로소 리싱 등을 보고 승상에 관인디도를 본바드리 업슴을 못너 한탄하고 이후로 서책을 물리치고 잠만 주더니 리싱 등이 퇴일하야 장수를 지니디 소싱이 마지 못하야 이리나 장수를 지니고 인하야 의관을 전폐하고 리싱 등으로 상종치 아니 하니 이러므로 부인이 더욱 불합하야 한번도 무라미 업고 비복 등이 또한 천디하야 하로 한씩을 먹이니 괴같이 즈심하디 장구치 못할 줄 알고 생각하되 아즉 머물러 저의 혼수를 기다리리라 하더라.”

41) 신용하본 〈蘇大成傳〉, 14장. “天子大驚乃發兵五十萬，使大將軍‘狄弘’，車騎將軍‘孫青’率衆御之。大軍乘夜倍道行千四百里至岱門。兩軍相御堅守不出，‘狄弘’使裨將‘徐牟春’率兵千餘人，登馬叱辱曰，‘惟爾胡王敢梗聖化侵凌中國，皇天震怒命我討之爾其當之哉。不狀則速出來降。’”

【완관 43장본】 형군호 보름문의 이르러 문득 보호되 적병이 산야을 덩패 질을 막난다 허거늘 경탁 문영으로 더부러 즉시 진문의 나 적진을 바라보던이 무슈호 오랑키 질을 막어 진을 치고 북홍노 제선유로 더부러 진문의 왕너허거늘 경탁 크게 위여 왈 네 엇더호 도적이관디 감이 질을 막는야 북홍노 디왈 나는 북방 요호국 응천씨 왕이라 명을 허늘게 바다 디병을 거나려 명나라을 멸호고 천허강산을 건져너려 허거늘 너의는 엇더호 기병이관디 천의를 아지 못호고 감히 항거호는다 경탁 디로호야 크게 꾸지져 왈 무지호 오랑키야 입을 열어 무슴 말 호는다 허늘이 두렵도 안이호나 천지신명호야 너의 반호는 줄 아르고 나를 명호스 너의등을 소멸케 호실시 디군을 드려 이에 왓논이 네 만일 천의를 순종호면 죄을 용호호련이와 그리치 안이호면 서북 오랑키을 다 합몰호고 네 머리을 버혀 천즈씨 밋치리라⁴³⁾

【경관36장본】 여러 날 만의 양관의 다다라 호병을 만나 진세를 버리고 성탁 호왕을 꾸지저 썩흠을 도도니⁴⁴⁾

【동양문고본】 여러 날 만의 양관의 다다라 적병을 만나 진세를 버리고 성탁와 호왕을 꾸지저 썩흠을 도도니⁴⁵⁾

이본을 불문하고 <소대성전>의 후반부는 군담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반부에서 부모쌍망과 처가박대라는 고난을 겪은 소대성은 전장에서 활약을 통해 잃었던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본별로 군담의 서술 비중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신용하본과 필암서원본, 완관 43장본은 비교적 전장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였으나, 경관본, 동양문고본 등은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만약 군담의 서술 정도를 기준으로 계열을 분별한다면, 신용하본, 필암서원본, 완관 43장본은 같은 부류의 이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위주로 따져보면, 필암서원본, 완관 43장본, 경관 36장본, 동양문고본 등은 등장인물, 사건 등의 측면에서 공통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용하본은 ‘강홍’, ‘손칭’, ‘서우춘’ 등 등장인물부터 전장의 장소나 사건 등 군담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볼 때 확실히 개성적이다.

신용하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들은 ① 북홍노와 선우의 침입, ②

42) 필암서원본 <덕성전>, 24-25장.

43) 완관 43장본 <소덕성전이라>, 19장.

44) 경관 36장본 <소덕성전 권단>, 20장.

45) 동양문고본 <蘇大成傳> 卷之二, 8-9장.

선봉대 ‘경태’와 ‘유문영’의 승전, ③ 호군의 야습으로 인한 선봉대의 패사(敗死), ④ 천자의 친정(親征)과 명장(明將)들의 죽음, ⑤ 소대성의 투군(投軍)과 선우(單于)의 죽음, ⑥ 소대성과 호왕의 일대일 대결(단기접전(單騎接戰), 팔문금사진(八門金蛇陣), 일자장사진(一字長蛇陣), 자운동에서의 화공(火攻), 변신술(變身術)], ⑦ 겸한의 거짓 도성 침략과 대성의 추적, ⑧ 호왕의 야습과 천자의 도주, ⑨ 호왕의 천자 생포와 항서 요구, ⑩ 대성의 본진 귀환과 호왕의 죽음 등 일정한 순차에 따라 군담이 진행된다. 서강대 소장 〈대봉기〉를 포함한 현전하는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이 모두 동일한 순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용하본에 설정된 군담은 ① 북흉노와 선우의 침입, ② 선발대 ‘적홍’, ‘손창’의 승전, ③ 호군의 급습과 치천(濫川)의 범람, ④ 호군의 양패(佯敗)와 협격(挾擊)으로 인한 선봉대의 궤멸, ⑤ 후발대 화원, 서원춘의 활약과 패사, ⑥ 천자의 친정(親征)과 서문(西門)에서의 대결, ⑦ 소대성의 등장과 활약, ⑧ 동문의 거짓 침략과 대성의 동문행(東門行), ⑧ 호왕의 본진 습격과 천자의 생포, ⑨ 대성의 본진 귀환과 호왕의 죽음 등의 순차로 진행된다.

이렇듯 신용하본에 설정된 군담이 유독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것은 〈소대성전〉의 승패구조를 따르되, 세부내용은 전투와 관련된 고사(故事)를 두루 참고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치천의 범람은 오직 신용하본에만 등장하는 까닭에 이본들 간 영향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내용 또한 『태평어람』에 전하는 고사와 닮아 있어, 다른 이본들이 아닌 고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명한 ‘항서요구 장면’⁴⁶⁾이 제외된 것도 신용하본이 고사와 같이 역사적

46) 필암서원본 〈뒤성전〉, 43-44장. “잇씩 호왕의 체담이 보호되 뒤성니 장안의 갖다 흐거늘 호왕니 디히호여 철기 습전을 거나려 초경의 횡군호여 명진의 다다르니 일진니 고요호야 인마 다 잠을 들어난지라 불의에 난을 만나니 제장 군졸니 밋쳐 손을 높이지 못호여 호왕의 철기용병으로 사모을 헛치며 만군 중의 흉돌호니 장졸의 머리 구시월 광풍의 나무입 갖튼지라 잇씩에 명진 천주 중군의서 줄을 들어게시다가 함성소리에 천지진동호거늘 놀너 창 바크 나와보니 화광이 등천한 가운디 일원 뒤장니 크게 위여 왈 명제는 어디이뇨 호며 달여더러 오거날 니난 곳 호왕이라 상이 디경호야 제장을 불으니 장졸이 다 허여지고 업난지라 제요 습장만 겨우 쯤제 일지병을 거나리고 북문으로 다라나더니 날이 임의 밧그며 황강 물가의 다다오니 강촌 빅성이 난을 피호여시되 근널 질리 어난지라 승이 습장을 도라보와 갈로디 좌우의 태손이 막혀 이고 압히 황강이 임호여거날 근널 기리 업고 호왕의 휘병은 접호였시니 그 가운디 이서 어디로 가리요 삼장은 심 다호야 뒤을 막으라 호시니 습장과 군스 말머리를 들너 호적을 디할 마음 둘 고지 업더라 호왕이 쫓아와 습장과 군스를 다 죽이고 명저은 흥정의 던 범이라 잇지 망극지 안니호리오 하나을 우러러 통곡 왈 죽기는 섭지 아이호되 스적이 오늘날

인 내용을 지향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측면이다.

항서요구 장면은 〈설인귀전〉, 〈유충렬전〉, 〈황운전〉 등에 포함되었으며 적장을 압도하는 주인공의 영웅성이 한껏 고양된 것으로 유명하다. 신용하본을 제외한 〈소대성전〉의 다른 모든 이본들에는 이러한 항서요구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대신에 신용하본은 도성을 등지고 그 앞에 진을 펼쳐 최후의 대결을 준비⁴⁷⁾하는 비장한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이른바 배성차일(背城借一)⁴⁸⁾은 배수지진(背水之陣), 제허분주(濟河焚舟), 사랑침선(捨量沈船) 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역사 속 최후의 결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신용하본에서 천지는 선발대와 후발대를 이끌던 장수와 병사들을 모두 잃고 서문 앞에서 호병을 기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대성은 동문과 서문을 오가면서 황제를 지키는 한편 호군의 침입을 저지한다. 다른 이본들에 보이는 소대성의 활약상, 즉 청충마로 단숨에 도성과 황강(黃江)을 오가는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감각으로 군담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신용하본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개성이 부각되지 않고, 앞서 살펴본 필암서원본, 완관 43장본 등에 설정된 결말과 유사하게 마무리된다. 천자와 나라를 구원한 공로로 노왕으로 봉해진 소대성은 채봉과 결연하고 처가와 화해한다. 신용하본에서는 소대성의 후일담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다만 66년간 선치(善治)를 베풀었으며 그 인덕(仁德)이 오래도록 칭송⁴⁹⁾되었다고만 간략히 전하고 있다. 서강대본 〈대봉기〉가 다른 이본들의 내용을 두루 수용하다가, 마지막 12회에서 선도적 주제를 첨가⁵⁰⁾한

내거 와 망ኻ 줄을 엮지 아라시리요 황천의 도라가 틱중황제게 하면목으로 보요리요
ኻ시고 통곡할시 [···] 호왕 왈 목숨을 앓길진디 용표를 세고 손가락을 씌무지 못할가
지족이 성화 갓트니 슁이 마지 못ኻ여 용표를 세고 손가락을 입의 너히 씌물여 ኻ니
츠마 압과 소리나는 줄을 모로고 통곡ኻ시니 용의 우름소리 구처의 스토츠니 하늘이
엮지 무심ኻ리요.”

47) 신용하본 〈蘇大成傳〉, 15장. “是時, 天子聞二將之敗死, 大驚召諸將議曰, “朕德甚薄天降大罰, 俾我宗社覆朕將, 明日父子君臣背城一戰以決死生矣.”

48) 『左傳: 成公二年』. “畏君之震, 師徒撓敗. 吾子惠徼齊國之福, 不泯其社稷, 使繼舊好, 唯是先君之弊器, 土地不敢愛. 子又不許, 請收合餘燼, 背城借一. 敝邑之幸, 亦云從也. 況其不幸, 敢不唯命是聽.”

49) 신용하본, 〈蘇大成傳〉, 21장. “魯王登御六十六年之間, 內有賢配日規諫, 以堯舜三代之治, 外多良佐日陳嘉謨, 王亦虛心納諫登庸賢才. 一境太平四方無憂, 百姓安樂子孫式义, 至今稱魯王之仁德云爾.”

50) 이대형은 서강대 소장 〈대봉기〉의 존재를 최초로 보고하면서 그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봉기〉의 이본적 위상에 대해 현 수준에서 조심스레 가늠해보자면, 필사자의 의식이 가문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명분을 지향하는 중세

것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서사적 형식들의 진화에서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제시하고 정리해주는 만족스러운 수단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⁵¹⁾ 〈소대성전〉과 같이 다양한 이본들이 현전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택한 방법처럼 방각본에 한정하여 연구를 전개해나간다면, 〈소대성전〉의 실체는 언제나 경판본 혹은 완판본 사이를 부유하는 '무언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이본 연구는 그간 본격적으로 분석된 바 없는 필사본 이본들을 포함하여 방각본과 구활자본 이본들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한다.

필자는 〈소대성전〉 이본들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뜻밖에 한문필사본 〈소대성전〉을 발굴하게 되었다. 본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처음 보고하는 한문필사본은 신용하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실 당시 입수하신 자료로, 현재는 한양대학교 신용하 문고에 기증된 상태이다. 신용하본은 판각본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인출(印出)한 종이 위에 아주 단정한 서체로 오서(誤書)된 부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료이다. 신용하본은 총 21장으로, 소대성의 가계와 고난을 다루는 전반부는 12장으로, 군담과 출세 후일담을 다루는 후반부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그동안 존재가 확인된 이본들의 대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소대성의 선조에 대해 다른 어떤 이본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지식인의 의식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는 점에서 20세기 무렵에 이전 이본들을 종합하면서 부연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대형, 앞의 논문(2011), 204쪽.

51) “개별작품들의 재생산 문제는 결코 자연도태의 문제가 아니다. 문학적 진화는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보다도 더 복잡하다. 문학적 진화는 일종의 생물학적 과정과 변증법적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교차로이다. 그런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종들은 때때로 결합해서 새로운 잡종을 생성하기도 한다.” Robert Scholes · James Phelan · Robert Kellogg 著, 임병권 譯, 『서사문학의 본질(The Nature of Narrative)』(40주년 기념 수정증보판)(예림기획, 2006), 36쪽.

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대성을 소무, 소동파, 소현성, 소양을 이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처가박대의 국면에 이르러서는 박순호 소장 38장본, 동양문고본, <대봉기> 등 필사본과 경판본, 구할자본과 같이 일가와 비복들 모두에게 하대를 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설정한 점이 독특하다.

후반부의 군담은 다른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장인물부터, 전장의 장소나 사건 등 군담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독특하다. 신용하본을 제외한 이본들은 모두 동일한 순차로 군담이 진행되는데, 신용하본은 전투와 관련된 유명 고사(故事)를 두루 참고한 듯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설인귀전>, <유충렬전>, <황운전> 등에 등장하는 극적인 '항서요구 장면'을 제외하면서도, 치천의 범람과 천자가 호군을 맞아 배성차일(背城借一)한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군담을 제시한 것이다. 결말부는 필암서원본, 완판 43장본 등에 설정된 결말과 같이, 소대성의 선치(善治)를 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서강대 소장 <대봉기>가 다른 이본들의 내용을 두루 수용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제의식을 첨가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신용하본을 비롯하여 필사본들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져온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영향으로 방각본이 <소대성전> 연구의 기준이 된 것이다. 특히 한문본의 경우, 『조선서지』의 목록으로만 존재하며 실체를 확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료로 오래도록 일컬어져왔다. <대봉기>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조선서지』에 전한 것처럼 단권 분량에 한글본을 그대로 번역한 한문본⁵²⁾의 면모와는 차이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현재 소장처별 최신 서지정보가 지속적으로 증보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하본과 같이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소대성전> 이본의 다채로운 존재양상은 물론이고 이본들의 계열, 지향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거시적인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52) 서경희, 앞의 논문(1998a), 25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左傳』.

『太平御覽』.

한문필사본 〈蘇大成傳〉. 신용하본.

한문필사본 〈大鳳記〉.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필사본 〈딤행전〉. 필암서원 소장.

한글필사본 〈蘇大成傳〉. 경기대학교 소장.

한글필사본 〈蘇大成傳〉. 동양문고본 소장.

한글필사본 〈蘇大成傳〉. 연세대학교 소장.

한글필사본 〈蘇賢聖錄〉.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신명서림본 상편 〈딤행용문전〉.

박순호 소장 38장본. 月村文獻研究所 編,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7. 昨晟社, 1986.

경관 16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경관 21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4.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경관 24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4.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경관 36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완관 43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안성판 20장본. 김동욱 編, 『古小說板刻本全集』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2. 단행본

Robert Scholes · James Phelan · Robert Kellogg 著, 임병권 譯, 『서사문학의 본질 (The Nature of Narrative)』(40주년 기념 수정증보판). 예림기획, 2006.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著, 이희재 譯,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일조각, 200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3. 논문

김도환, 「〈낙성비룡〉의 구성적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소대성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18권, 2011, 125-155쪽.

김동욱, 「〈소대성전〉의 주인공 소대성의 인물형상 연구」. 『古典文學研究』 제50권, 2016, 131-157쪽.

김미식, 「〈蘇大成傳〉의 大衆性 研究」.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4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韓國文學論叢』 제41권,

2005a, 167-187쪽.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9권, 2005b, 51-71쪽.

_____,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상성명학적 연구」. 『韓國文學論叢』 제44권, 2006, 61-86쪽.

김일렬, 「〈洛成飛龍〉 研究」. 『東洋文化研究』 제3권, 1976, 71-89쪽.

김현양, 「〈소대성전〉의 서사체계와 소설적 특성」. 『연세어문학』 제26권, 1994, 25-63쪽.

김홍균, 「뭇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제27권, 1985, 145-165쪽.

류탁일,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1-249쪽.

박명숙, 「〈洛成飛龍〉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1-105쪽.

박은미,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홍길동전〉, 〈유충렬전〉, 〈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98쪽.

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a, 1-113쪽.

_____, 「〈용문전〉의 서지와 유통」. 『이화어문논집』 제16권, 1998b, 93-111쪽.

신해진, 「완판 43장본 〈蘇大成傳〉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 제4권, 2008, 147쪽.

유춘동,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 다쿠소쿠(濯足) 문고 소장, 조선전적(朝鮮典籍)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8권, 2012, 299-326쪽.

엄태웅, 「〈소대성전〉, 〈용문전〉의 경관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 양상: 축한정통론과 대명의리론의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41권, 2011, 35-76쪽.

이대형, 「〈소대성전〉의 한문본 〈大鳳記〉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4권, 2011, 189-214쪽.

이명현, 「〈용문전〉에 나타난 儒教規範과 天命」. 『語文論集』 제28권, 2000, 385-420쪽.

이복규, 「〈蘇大成傳〉 坊刻本 檢討」. 『論文集』 제8권, 1980, 33-53쪽.

이수자, 「〈蘇大成傳〉 研究」. 『이화어문논집』, 제6권, 1983, 73-88쪽.

이원수, 「〈소대성전〉과 〈용문전〉의 관계: 〈용문전〉 이본고를 겸하여」. 『語文學』 제46권, 1985, 153-174쪽.

이유진, 「신자료 〈蘇大成傳〉 이본의 현황과 서사적 특징: 경기대학교 소장본, 필암서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제43권, 2017.

이지영, 「〈장풍운전〉, 〈최현전〉, 〈소대성전〉을 통해 본 초기 영웅소설 전승의 행방: 유형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제10권, 2000, 19쪽.

- 이지하, 「〈용문전〉 연구」. 『冠嶽語文研究』 제14권, 1989, 279-298쪽.
- 이창현, 『京板坊刻書小説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현주, 「〈낙성비룡〉에서 우울증의 해소와 여행의 의미」. 『韓民族語文學』 제74권, 2016, 287-317쪽.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170쪽.
- _____, 「완관 〈소대성전〉의 대중소설적 기법」. 『열상고전연구』 제10권, 1997, 185-208쪽.
-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古小説 研究』 제37권, 2014, 205-231쪽.
- 조희웅, 「〈낙성비룡〉과 〈소대성전〉의 비교 고찰」. 『冠嶽語文研究』 제3권, 1978, 463-471쪽.
- _____, 「古典小説 研究 落穂 數則: 『象胥記聞』·『九雲記』·『蓮塘傳』 등에 대하여」. 『語文學論叢』 제17권, 1998, 42쪽.
- 허순우, 「〈소대성전〉의 文體論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07쪽.
- 현혜경, 『知人之鑑類型 古典小説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32쪽.

국 문 초 록

신용하 소장본은 〈소대성전(蘇大成傳)〉을 제명(題名)으로 하는 유일한 한문본으로,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이전에는 서강대학교에 소장된 〈대봉기(大鳳記)〉가 유일한 한문본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그 제명부터가 다르고 형식, 내용, 주제 등의 측면에서 〈소대성전〉의 여타 이본들과 구별되는 요소가 적지 않아 활발히 다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신용하본은 필사본, 경판본, 완판본 등의 설정을 아우르고 있는 자료이면서도 여타 이본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도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용하본의 전반부는 그동안 존재가 확인된 이본들의 대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어떤 이본보다 소대성의 선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대성을 소무, 소동파, 소현성, 소양을 이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처가박대의 국면에 이르러서는 박순호 소장 38장본, 동양문고본, 〈대봉기〉 등 필사본과 경판본, 구활자본과 같이 일가와 비복들 모두에게 하대를 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설정한 점이 독특하다. 후반부의 군담은 다른 이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장인물부터, 전장의 장소나 사건 등 군담을 이루는 요소들이 개성적이다. 신용하본을 제외한 이본들은 모두 동일한 순차로 군담이 진행되는데, 신용하본은 전투와 관련된 유명 고사(故事)를 두루 참고한 듯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설인귀전〉, 〈유충렬전〉, 〈황운전〉 등에 등장하는 극적인 ‘항서요구 장면’을 제외하면서도, 치천의 범람과 천자가 호군을 맞아 배성차일(背城借一)한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군담을 제시한 것이다. 결말부는 필암서원본, 완판 43장본 등에 설정된 결말과 같이, 소대성의 선치(善治)를 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투고일 2017. 6. 22.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신자료(newly discovered version), 한문본(Chinese writing(hanmun) version), 신용하본(Shin Yong-Ha version), 이본(different version), 형성(formation), 전승(transmission), 군담소설(war novel), 필사본(manuscript version), 방각본(printed version), 확장형(extension version),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ne*), 완판 43장본(43-sheet of printed version in Jeonju)